경계선 지능 청소년 지원정책 발굴

서울시, 6300만원 투입 연구용역
청소년 실태·발달주기별 욕구 파악
성장·생활환경 등 환경 분석 병행

서울시가 경계선 지능 청소년에 대한 실태 조사에 나선다. 제도적 지원에서 소외된 경계선 지능 청소년의 실태와 특성, 요구사항을 파악해 교육, 진로, 상담 등 맞춤형 지원 시책을 발굴하기 위해서다.

18일 시에 따르면 총 6300만원을 투입해 '서울시 경계선 지능 청소년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용역을 실시한다.

시는 올해 1월 기준 관내 청소년 인구 총 152만5000명 가운데 약 13.6%인 20만7000명이 경계선 지능(느린 학습자)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미국 정신의학회의 '정신장애 진단 및 통계편람'에 의하면 지능지수가 71~84 사이면 경계선 지능으로 분류된다.

경계선 지능 청소년은 지적장애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평균보다 낮은 지능을 갖고 있어 학교와 일상생활의 어려움으로 부적응을 경험하는 청소년이다.

시는 "경계선 지능 청소년의 경우 학령이 올라가면서 학습부진, 따돌림·학교폭력으로 사회적 문제가 발현·심화되는 시기"라면서 "그동안 정상 범주로 간주돼 경계선 청소년에 대한 실태나 욕구 조사 등이 체계적으로 이뤄진 적이 없으며 지원 정책도 미비하다"고 용역 추진 배경을 밝혔다.

시는 연구 용역을 통해 서울 거주 경계선 청소년의 실태와 발달주기별 욕구를 파악할 계획이다. 청소년기는 연령에 따라 특성과 니즈 차이가 크므로 발달주기별로 조사하되, 다양한 욕구 확인을 위해 성장과 생활환경, 교육, 정서, 대인관계와 같이 개인을 둘러싼 다양한 환경 분석까지 병행토록 할 방침이다.

경계선 지능 청소년에 관한 개념 정의와 설문 설계를 위해 한국 장애인개발원의 '아동양육시설 퇴소 후 경계선 지능 아동 지원방안 연구'나 동북권 NPO센터의 '동북권 느린학습자에 대한 기초조사' 등 국내외 선행 연구도 검토한다.

이와 함께 서울시교육청의 '서울학습도움센터', 서울시의 '청년 느린학습자 자립지원 시범사업'을 포함 교육청, 보건복지부, 시청의 지원 사업의 성과를 분석해 개선점을 도출하기로 했다.

시는 "경계선 지능은 특정 시기가 아니라 생애주기적 관점에서 접근이 요구되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정책 발전 방향성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면서 "실태와 발달주기별 욕구 분석을 토대로 정책적 시사점을 제안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시는 오는 20일까지 경계선 지능 청소년 실태 조사를 수행할 용역 업체를 모집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나라장터에서 입찰참가 등록 후 가격을 전자로 투찰하고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서울시 청소년정책과(중구 서소문로 124 서울시티스퀘어 5층)로 제출하면 된다. 최종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후 5개월간 과업을 맡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나라장터 홈페이지나 서울시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서울시, 전 세계 코로나 현장 담은 사진전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라는 전대미문의 재난이 덮친 브라질 상파울루. 82세 아버지와 생이별을 해야 했던 딸 마리아가 100일 만에 아버지를 만났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특별 제작된 허그 커튼(Hug Curtain)을 통해서다. 아버지는 조금 야위었지만 여전히 따뜻하다. 감염병도 막을 수 없는 부녀의 애틋한 순간을 브라질의 포토저널리스트 세바스티앙(스페인 국영통신사 EFE 상파울루 지국 소속)이 한 장의 사진으로 담아냈다.

'2020 서울 글로벌 포토저널리즘 사진전' 포스터. /서울시

서울시는 코로나19 팬데믹 속 인류의 혼돈, 좌절, 용기, 희망을 포착한 전 세계 취재사진 120점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2020 서울 글로벌 포토저널리즘 사진전'을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전시 기간은 오는 20일부터 12월 20일까지다.

/김현정 기자

온라인으로 만나는 '재생에너지 문화축제'

공모 통해 상금 수여

서울에너지드림센터는 제2회 재생에너지 문화축제 '동네 그린에너지가 희망이다'를 연다고 18일 밝혔다.

축제 프로그램은 ▲우리동네 그린에너지를 찾아라 ▲돼지삼형제의 에너지제로하우스를 찾아라 ▲야외 기후위기 방탈출 ▲실내 기후위기 방탈출 등 총 4가지로 구성됐다.

메인 프로그램인 '우리동네 그린에너지를 찾아라'와 '돼지삼형제의 에너지제로하우스를 찾아라'는 동네 건물이나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재생에너지를 찾아 인증사진을 찍어 참여하는 공모전 프로그램이다.

시는 '우리동네 그린에너지를 찾아라' 공모를 통해 대상 1명과 최우수상 2명, 우수상 6명을 선정한다. 대상 수상자에게는 20만원의 상금을 수여하며 최우수상에는 10만원, 우수상에는 5만원을 준다.

/김현정 기자

"서울시가 관광업계 재도약을 응원합니다"

서울관광 스타트업 창업 아카데미
코로나 이후 관광 트렌드·전략 설명

서울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관광업계의 재도약을 위해 '2020 서울관광 스타트업 창업 아카데미'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창업 아카데미는 관광 관련 예비창업자와 현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코로나19 이후 달라질 관광 트렌드를 쉽게 설명하고, 이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소개한다고 시는 전했다.

이번 아카데미는 오는 28일부터 4주간 매주 수요일마다 온라인으로 열린다.

미국 실리콘밸리 내 글로벌 기업에서 근무 중인 마케터와 유튜브 본사의 커뮤니케이션 전략 담당자, 국내 관광분야 스타트업 창업자 등 전문가들이 강사로 나선다.

화상회의 프로그램 줌(Zoom) 서비스를 통한 온라인 실시간 강의로 운영되며 질의응답과 발표도 가능하다. 수업 이후 과제를 제출해서 강사들에게 직접 피드백을 받아볼 수도 있다.

관광분야 창업 또는 관광트렌드 변화, 글로벌 마케팅전략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벤터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19일 오전 10시부터 26일 오후 6시까지다.

'2020 서울관광 스타트업 창업 아카데미' 포스터. /서울시

이은영 서울시 관광산업과장은 "이번 아카데미가 코로나19로 침체된 관광시장에 새로운 활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고양시, 기후위기 대응 대도시 포럼

21일 고양시 유튜브 채널 생중계
'탄소중립 시민 실천연대' 발족

고양시가 2023년 대한민국 개최가 유력한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이하 COP28) 유치를 선언한다.

시는 오는 21일 14시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고양시 기후위기 대응 대도시 포럼'을 열어 지역 국회의원들과 도의원, 시의원, 시민단체 등 50여명이 참여해 COP28 유치 선언을 하고, 탄소중립도시 기반 마련을 위한 고양시 의지를 전국에 확산시킬 계획이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지침을 엄격히 준수하며 진행, 본격적인 포럼 행사가 시작되는 14시 40분부터는 고양시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시민들이 시청할 수 있도록 생중계한다.

이번 포럼은 고양시와 고양시정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한다. ▲교통 ▲에너지·건물·폐기물 ▲탄소중립도시 확대 적용 방안을 주제로 3회에 걸쳐 '탄소중립도시를 구축하기 위한 기후위기 대응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제1회 포럼 주제는 '대도시에서의 교통부문 탄소저감 정책방향'으로 탄소 배출량이 많은 대도시에서의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고양시만의 정책 방향을 선제적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특히, 포럼 시작 전 사전행사로 저탄소생활 실천을 위한 240여개 시민단체 모임인 '고양시 탄소중립 시민 실천연대'를 발족, 시민들이 기후위기 문제를 해결하고 극복할 수 있는 추진 동력이자 주체임을 표명할 계획이다.

/고양(경기)=안성기 기자 ask9990@

김포골드라인 車 추가 투입… 혼잡률 ⬇

2024년부터 2분대 배차 가능

김포시 도시철도 김포골드라인의 혼잡율 개선을 위해 2021년부터 차량 추가 제작에 착수한다고 18일 밝혔다.

지난해 9월 개통한 김포골드라인은 지속적인 이용객 증가로 일일 수송수요 6만 명, 혼잡율 150%를 웃돌면서 출퇴근 때 승차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

도시개발이 지속되면서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김포시의 인구 증가수가 1위를 기록할 정도로 철도 이용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김포시는 '김포골드라인 단기 및 중장기 수송수요 예측 용역' 결과를 토대로 차량 추가 제작 및 배차간격 단축을 통해 혼잡율을 150%대로 낮출 계획이다.

/김포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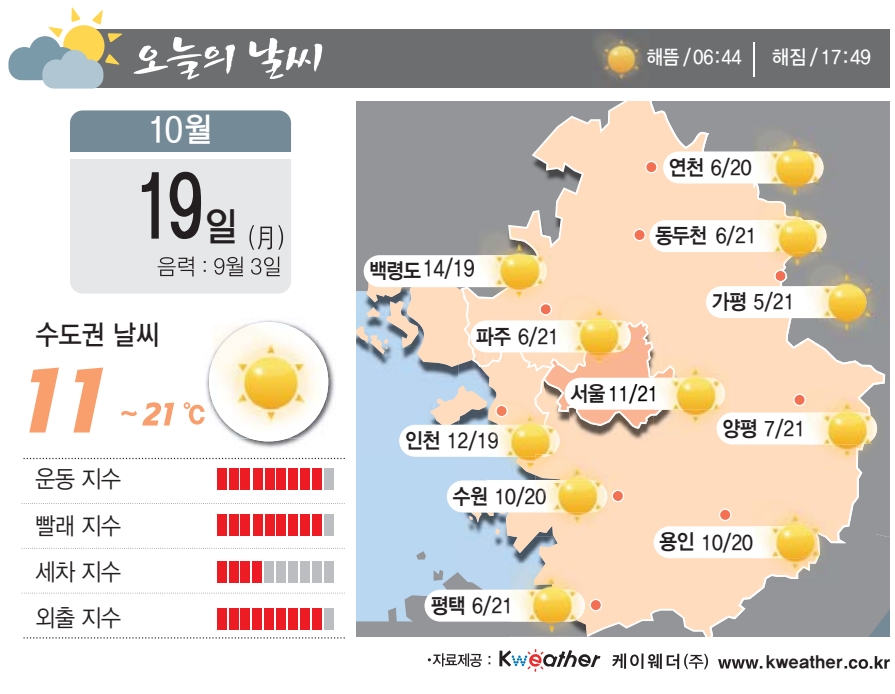
이를 위해 2021년에 전동차 추가 제작에 착수하고 2024년부터 차량을 추가 투입해 출퇴근 시간대 배차간격을 2분대로 운행해 혼잡율을 완화할 예정이다.

차량 추가 투입 전까지는 혼잡시간대별 이용패턴을 분석해 이용율이 높은 시간대 집중배차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김포(경기)=안성기 기자

파주시

'DMZ 무료관광' 재개

파주시는 오는 20일부터 아프리카돼지열병 및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중단됐던 '문산자유시장' 연계 DMZ관광을 재개한다고 18일 밝혔다.

파주시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운영해오던 문산자유시장 연계 DMZ관광은 지난해 10월 2일부터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으로 DMZ관광과 함께 중단됐다. 파주시는 지난 12일부터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하향되면서 문산자유시장 연계관광을 재개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연계관광은 문산자유시장에서 1인당 1만 원 이상 구매한 고객에게 DMZ 평화관광 티켓을 무료로 제공한다.

/파주(경기)=안성기 기자